

빅데이터와 시각화

『서울시장 마지막 선거 유세
최적 입지 선정 전략』



담당교수	송규봉
학과	빅데이터 경영통계학과
학년	4학년
학번	20155183
제출자	김석준
제출일	2018.06.11

1. 서론

선거 유세란 후보자들이 선거에서 투표로 당선되기 위해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연설을 통해 후보자들이 어떤 일을 실행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을 알리고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많은 사람에게 설명하며 돌아다니는 것을 말하며, 이는 민주주의 선거를 담당하는 선거운동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¹ 본 글에서는 서울시장 마지막 선거 유세를 서울시 지하철 2호선 전철역 중 어디에서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 몇 가지 선정 요인을 정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입지 전략을 세워보고자 한다.

2. 본론

2.1 입지 전략

그렇다면 서울시장 선거 마지막 유세를 어디에서 진행하면 가장 좋을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 국민이 그 나라의 주인이자 주권자인 체제이다. 따라서, 유세 활동의 장소는 단순히 데이터의 결과에만 치중되어 선정할 수 없고, 유권자들의 여론을 적절히 잘 반영하여 선정해야 한다. 앞으로 탐색적데이터분석을 통해 이상적인 지리적 특징을 가진 곳을 찾아보고, 이에 추가적으로 여론을 반영하여 이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입지를 선정하고 입지 전략을 세워볼 것이다.

2.2 선정 입지

¹ [네이버 지식백과] 유세 [campaign, 遊說] (천재학 습백과 초등 국어 용어사전, 천재교육).

² 서울특별시 열린 데이터 광장, 녹지대 공간정보 (좌표계:WGS1984), 2012.04.25.

2.2-1 첫 번째 선정 입지 : 홍대입구역



▲ [그림1] 유권자(2~60대 대상)

유동인구 밀집 지역 + 녹지대²³ 설치 현황

첫 번째 선정 입지는 2호선 홍대입구역 교차로에서 홍익대 정문으로 이어지는 '홍익로 교차로'와 '걷고 싶은 거리'이다[그림2].



▲ [그림2] 홍익로 교차로와 걷고 싶은 거리

³, 녹지대 : 복사열의 흡수, 직사광선의 완화 등으로 기후를 개선하고 대기오염정화, 소음 진동의 차단·흡수·완충 효과를 가져온다[네이버 지식백과] 녹지대 [green zone, 綠地帶].

선정 입지는 유리한 '지리적 특징'을 가진 곳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선정 요인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권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대표적인 대학가 상권인 홍대입구역은 유행에 민감한 젊은이들의 패션을 담당하고 있는 패션상권과 유명한 프랜차이즈들이 입점해 있는 먹자상권, 밤 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클럽상권 등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어 2~30대의 젊은 연령층의 유동인구가 가장 활발한 곳 중 한 곳이다. 선거 유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에게 후보자가 노출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교통정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유세차량을 이용한 선거 운동이 치열해지면서 애꿎은 시민들이 유세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정체로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유세 활동 장소의 지리적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잘 이용하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유권자들에게 장시간 노출될 수 있어 유세 활동에 이로울 것이다. 지난 2014년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서울에서 교통 체증이 가장 심한 곳은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교차로에서 홍익대 정문으로 이어지는 홍익로로 도로별 통행속도를 보면, 교통 혼잡이 가장 심해 통행속도가 가장 떨어지며 하루 평균 시속 12.0km에 불과했으며, 특히 오후 5~7시에는 평균 시속이 10.0km까지 떨어졌다."고 전했다.⁴

⁴ "서울에서 교통 체증 가장 심한 곳은?", 한겨레, 음성원, 2014.05.12.

그렇다면 최대한 교통정체가 극심한 오후 5~7시를 피해 낮과 오후시간을 잘 이용한다면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음과 동시에 후보자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위에서 홍익로 교차로와 걷고 싶은 거리를 함께 언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홍대입구역의 유동인구 연령대층은 주로 젊은 20~30대로 구성이 되어있다. 그리고 홍익로 교차로 바로 옆에는 걷고 싶은 거리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은 버스킹이나 공연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어 젊은 관객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준다. 물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소음기준(60Db)을 초과한 공연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적혀있다.⁵ 요지는 여기 있다. 홍익로의 교통체증이 극심할 오후 5시부터 유세 장소를 옮겨 걷고 싶은 거리를 공략하는 것이다.

셋째, 주변에 녹지대가 잘 분포 돼 있어 소음을 완충해 줄 수 있는 지역이다.



▲ [그림3] 걷고 싶은 거리 녹지대 설치 현황
이제, 장소를 옮겨 걷고 싶은 거리로 유세 활동 지역을 옮겼다고 가정해보자. 앞에서 문제

⁵ "음악과 소음사이... 홍대 거리 '야간 공연 금지' 딜레마", 중앙일보, 장혁진, 2015.08.11.

로 삼았던 교통정체 문제가 어느정도 타협이 되었다고 해도 유세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소음문제 역시 외면할 수 없다. 그러나, 다행히도 홍대입구역에는 다른 2호선 전철역 주변(반경500M)보다 녹지대가 잘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그림3,4].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버스킹과 공연문화가 오래전부터 형성되어왔고, 그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덜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다.



▲ [그림4] 서울시 2호선 전철역

반경 500M 기준 녹지대 밀집 지역

넷째, 젊은 인구층의 표심을 사로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홍대입구역을 찾는 인구는 대부분 2~30대가 주류인 만큼 그들에게 걸맞은 공약을 어필하기에 적합하다. 예를 들면, 일자리나 육아 문제에 대한 공약 등을 비롯해, 과거 안철수 후보가 걷고 싶은 거리에서 했던 일명, '걷는 유세', '뚜벅이 유세'가 가능하다. 이러한 유명인사의 퍼포먼스는 젊은 층들로 하여금 흥미를 불러일으켜 후보자를 주목하게 만들 것이고,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산의 표심을 잡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2.2-2 두 번째 선정 입지 : 강남역



▲ [그림5] 유권자(2~60대 대상)

유동인구 밀집 지역 + 주택가 밀집 지역

+ 30대 여성 유동인구

두 번째 선정 입지는 2호선 '**강남역**'이다.

기준은 '주요 타겟'이 될 만한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권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강남역은 업무 및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복합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곳이다. 따라서, 유동인구 최다지역인 만큼 '회전율'이 빠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노출될 수 있어 매우 전략적인 입지가 될 수 있다.

둘째, '미세먼지'에 가장 관심이 많은 타겟층이 존재하는 곳이다.

지난 7일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서울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미세먼지 대책은 남자(13.9%)보다는 여자(23.2%)에게서 관심도가 높았으며, 특히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는 나이인 30대(21.8%)가

가장 관심이 많았다.”⁶고 밝혔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QGIS를 이용해 일정기간 동안의 30대 여성인구의 유동인구 변화를 확인한 결과를지로입구역, 강남역, 선릉역, 역삼역, 시청역 순으로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강남역은 약 175706명으로 두번째로 높은 유동인구 최다 발생 지역이었다. 추가적으로, 이동용 유세 차량없이 유세 활동을 한다면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금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어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주거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은 곳이다.



▲ [그림6] 강남구 언론 이슈 워드클라우드⁷

최근 4년간 언론기사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강남구의 관심 이슈를 추출하여 워드클라우드로 나타낸 결과, 가장 관심이 높은 키워드는 아파트, 건축, 지하철, 구룡마을, 부동산 순이었다. 대체적으로 주거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실제로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에 대해 한국감정원은 하락의 원인을 기존 수도권 아파트의 신규공급물량 증가와 더불어 서초구 소재 반포 현대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때문으로 평가하고 있다.⁸ 따라서, 후보자가 이러한 고층에 알맞은 공약을 내걸어서 이들을 공략한다면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표심을 사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8학군 밀집 지역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지난 1월부터 5월16일까지 누리집(nec.go.kr)에서 접수한 서울지역 희망 공약 총220건을 분석한 결과, 서울 유권자들의 관심 분야는 사회·복지(38.6%), 교육·환경(35.9%), 경제·민생(13.6%) 순으로 높았다고 발표했다.⁹ 이 결과를 통해 유권자들은 사회·복지 분야 만큼이나 교육·환경 분야에 있어서 관심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소위 ‘8학군’이라고 불리는 강남은 학구열이 다른 구에 비해 높을 것이므로 이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합리적인 교육 공약을 통해 이 지역을 공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4가지의 입지 요인을 종합하여 시각화해보면 [그림7]과 같다.

⁶ “서울은 주거·미세먼지에 큰 관심...경기·경남

은?”, 한겨레, 남은주, 홍용덕, 신동명, 2018.06.07.

⁷ 우리동네 공약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대학교(폴랩),

<http://www.nec.go.kr/portal/contents.do?menuNo=2>

[00706&type=2](#)

⁸ “강남 아파트 가격에 영향끼치는 ‘재건축 부담금’은 무엇?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병용, 2018.06.09.

⁹ “서울 유권자 최대 관심사는 사회복지-교육환경 순”, 서울엔, 이현숙, 2018.05.24.



▲ [그림7] 강남역 선거 유세 최적 입지

2.2-3 세 번째 선정 입지 : 시청역

세 번째 선정 입지는 2호선 '시청역'이다.

입지 요인은 해당 입지가 지닌 '상징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마지막 유세'인 만큼 후보자들이 최후로 가는 그 선거 유세의 장소는 상징적이기 때문에 각 선거 후보자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정치적 성향이나 공약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여 마지막 기간까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산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어야 한다.

다음은 국내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선거운동 기간(05.31~06.12)동안 '시청역'이란 키워드로 설정되어 기재된 기사들을 파이썬을 이용해 크롤링하여 워드클라우드로 표현한 결과이다.



▲ [그림8] '시청역' 키워드 워드클라우드

눈 여겨볼 단어는 '후보', '자유', '민주당'이다. 세 단어는 선거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시청역이 어느정도 정치적 '상징성'

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일례로, 지난 19대 대통령 후보 선거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광화문과 대한문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촛불'과 '태극기' 집회에 담긴 상징성을 품고 유세 활동을 펼쳤던 장소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출발점이었던 광화문은 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향한 염원이 담긴 곳으로 상징성이 부여되고 있다. 반대로, 태극기 집회가 열렸던 덕수궁 앞 대한문은 광화문 촛불집회에 대항하여 탄핵에 반대했던 장소이다. 이렇듯이 저마다 장소에 따라 그 지역이 갖는 독특한 상징성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선거 운동 시작과 마지막 유세장소에서 갖는 메시지는 주목도가 높고 정치적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후보자의 정치적 컨셉과 시대정신이 가장 잘 구현이 될 수 있는 장소와 메시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3. 결론

본론을 종합해보면 대표적 입지 선정 기준으로는 지역의 '지리적 특징', 공약의 대상이 될 '주요 타겟', 각 지역이 갖고 있는 독특한 '상징성'등을 기준으로 선택하였고, 이 3가지 요인들을 바탕으로 분석을 한 결과 마지막 선거 유세 활동을 위한 최적의 유세 장소로 홍대입구역, 강남역, 시청역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소견으로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를 꼽자면,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걷고 싶은 거리에서 도보유세를 할 것인지?'와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와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가 광화문과 대한문에서 마지막 유세를 할 것인가?'가 될 것 같다.

[참고자료]

[1] [네이버 지식백과] 유세 [campaign, 遊說] (천재학습백과 초등 국어 용어사전, 천재교육).

[2] 서울특별시 열린 데이터 광장, 녹지대 공간 정보(좌표계:WGS1984), 2012.04.25.

[3] [네이버 지식백과] 녹지대[green zone, 綠地帶].

[4] "서울에서 교통 체증 가장 심한 곳은?", 한겨레, 음성원, 2014.05.12.

[5] "음악과 소음사이... 홍대 거리 '야간 공연 금지' 딜레마", 중앙일보, 장혁진, 2015.08.11.

[6] "서울은 주거·미세먼지에 큰 관심...경기·경남은?", 한겨레, 남은주, 홍용덕, 신동명, 2018.06.07.

[7] 우리동네 공약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대학교(폴랩),

<http://www.nec.go.kr/portal/contents.do?menuNo=200706&type=2>

[8] "강남 아파트 가격에 영향끼치는 '재건축 부담금'은 무엇?[지식용어], 시선뉴스, 김병용, 2018.06.09.

[9] "서울 유권자 최대 관심사는 사회복지-교육 환경순", 서울엔, 이현숙, 2018.05.24.